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갈등과 그 해소 방안: 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전 우 택 · 민 성 길 *

I. 시작하는 말

한 국가의 사회 체제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일인 동시에 그러한 적응 과정에서의 갈등을 겪게도 한다. 그러한 갈등은 내용적인 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차원적인 면에서 개인적, 소규모의 가족 집단적, 대규모 집단적, 국가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체제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차원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회 변동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북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사회가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된 강한 사상적 특성을 가진 공산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북한 체제하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을 심리적 갈등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북한과 유사한 독재 공산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1990년대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한 루마니아를 사례로 하여, 루마니아에서 나타난 사회 체제 변화 속의 갈등을 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북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앞으로의 갈등 내용에 대하여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공산화 이전 및 공산화 이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혁명 이후의 루마니아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돋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한 루마니아의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2. 본 연구자들은 2001년 11월 24일~12월 1일까지 루마니아 현지 방문을 통하여 많은 루마니아 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지식인들, 그리고 루마니아의 교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의 면담(Key Informants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보면 루마니아의 사회학자 3명, 심리학자 2명, 경제학자 2명, 경제관료 1명, 언론인 1명, 외교관 1명, 그리고 한국의 외교관과 교민 4명이었다. 본 면담은 주로 개인 면담으로 이루어 졌으나, 같은 기관의 사람들과는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각 면담의 평균 면담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면담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각 면담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더하는 방식의 비구조화된 면담이 병행되었다. 면담자 중 일부는 본인의 이야기로 밝히기

를 원치 않으시는 내용들도 있어 전체적으로 그 발언자의 이름을 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자의 전공 영역은 표하도록 하였다. 면담자 중 루마니아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Catalin Zamfir 교수. 국립 부카레스트 대학, 사회학

Elena Zamfir 교수, 국립 부카레스트 대학, 사회학

Ilie Badescu 교수, 국립 부카레스트, 대학 사회학

Septimiu Chelcea 교수. 국립 부카레스트 대학, 사회심리학

Ioan Popa 교수. 루마니아 경제대학 국제경제학(Academy of Economic Studies)

Gheorghe Dolgu 교수. 루마니아 경제대학 국제경제학(Academy of Economic Studies)

Izidor Urian 전 대사. 전 주 북한 루마니아 대사, 전 주 대한민국 루마니아 대사.

Ioan Bradu Iamandescu 교수. C Davilla 의학 및 약학대학, 의료심리학

Florin Bonciu 박사. 루마니아 경제개발부, 투자촉진 책임자

Dumitru Tinu 회장, Adevarul지(루마니아 유력 일간지)

3.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루마니아의 상황이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II. 루마니아에 대한 이해 : 현대사를 중심으로

1. 공산화 이전

공산화 이전의 루마니아 역사에 대한 정리는 Brogoan과 Patrick

양운철, 정홍모, 김성기 Homepage, 김효수 Homepage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¹⁾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루마니아는 중립을 선언하였다. 3국 연합국(Puterile Centrale)은 루마니아에게 바사라비아 지방과 부코비나 지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루마니아는 연합국이 제안한 약속을 문서로 공식화 할 경우에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6월 17일 부쿠레슈티에서는 루마니아와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사이에 협상이 체결되었고, 1916년 6월 28일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1918년 5월 7일에는 부쿠레슈티에서 러시아와 삼국동맹 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1918년 12월 1일 트란실바니아의 루마니아 민족 위원회(Consiliul Notional Roman)는 트란실바니아와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던 루마니아인들이 참석하는 국민 대회(Adunarea Populară de la Alba-Iulia)를 알바 이울리아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 모였던 대표자들은 트란실바니아와 루마니아의 통일을 결정하여 선포하였다. 이 시기에 브러티아누를 주축으로 하는 루마니아 대표위원들은 파리 평화회담에 참석하여 회담의 결과를 루마니아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회담의 결과는 루마니아인들이 원하던 것과는 상이하였다. 즉, 세계 열강들(프랑스와 영국)은 제1차 대전 초 루마니아에게 트란실바니아를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에 루마니아가 단지 바사라비아와 부코비나와 통일하는 것만 인정하였다. 1919년 4월 헝가리 군대는 트란실바니아에 주둔해 있던 루마니아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루마니아 군대는 8월 4일 부다페스트

1) Brogoan & Patrick, *Eastern Europe 1939–1989*, (London: Bloomsbury Publishers, 1990);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 전환으로』(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양운철·정한구 풍저,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북한에 주는 교훈』(서울: 세종연구소, 1999); 김효수 개인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TheTropics/Equator/5197/>;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를 점령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1920년 8월 28일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서 루마니아와 트란실비니아의 통일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대(大)루마니아(Romania Mare)가 탄생되었다. 루마니아가 통일을 이루한 이후 국토의 면적과 인구의 수는 유럽에서 중간 수준에 이르렀다. 1930년 농촌 인구는 루마니아 총 인구의 79.9%이었고 도시 인구는 20.1%이었다.

1919년 루마니아에서는 보통 선거법(*legea votului universal*)이 쳐음으로 적용되어 정당조직이 새롭게 재편되었다. 실제로 보통 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정당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던 정당 중에서 자유당(Partidul Liberal)만이 그대로 존속하였고,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 정당은 루마니아 최대의 정당이 되었다. 1921년 대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농경 법이 제정되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100헥타로 제한됨으로써 대지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외의 토지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 루마니아의 농작물 생산량은 세계 5위였고 주로 밀을 수출하였다. 따라서 루마니아 농업은 제1차 세계 대전 때 파괴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시기에 좌·우파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루마니아 사회의 긴장감은 차츰 확대되었고 1921년에는 루마니아 공산당(Partidul Comunist din Romania)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루마니아 노동조합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兩차 세계대전 사이의 루마니아 공산당(P. C. R)은 코민테른(International Communist)의 한 분파였다. 즉, 모스크바의 이권을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이었다. 1922년 루마니아 공산당은 2,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양 차 대전 사이에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924년 루마니아 공산당은 루마니아와 바사라비아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 등 루마니아의 새로운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체계 정당으로 간주되었다.

1930년 카를 II세는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전제 군주제로 바꾸었고 기존의 정당들을 폐지시켰다. 왕은 군대와 경찰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를 통치하였지만 외교분야에서 1939년 3월 독일과 불공평한 통상 조약(*tratatul comercial*)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루마니아의 경제는 차츰 독일에게 종속되는데, 당시 독일의 관심은 루마니아의 석유에 있었다. 루마니아가 독일과 통상 조약을 맺자 프랑스와 영국은 이에 반발하였고, 그들도 루마니아와 통상 협정(*acordul comercial*)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1919년 루마니아가 통일을 이룩할 당시에 루마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였지만 루마니아가 당시에 회복한 영토 즉, 루마니아의 새로운 국경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1939년 8월 23일 리벤트롭(Joachim von Ribbentrop)과 몰로토프(Molotov)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루마니아의 영토는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루마니아의 바사라비아 지방과 부코비나 지방 그리고 헤르짜(Herza)지역을 병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6월 26일, 러시아는 루마니아에게 이 지역에서 48시간 이내에 군대를 철수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만 했고, 결국 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하나인 몰도바 공화국이 형성되었다. 그 이후 이 지역에서는 루마니아인에 대한 러시아의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몰도바 공화국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들을 시베리아로 이주시킨 동시에 러시아인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히틀러의 압력으로 루마니아는 도브로제아 Dobrogea 지방의 남부지역에 있는 카드릴라테르 Cadrilater 지역을 불가리아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루마니아-헝가리 회담에서는 헝가리가 트란실바니아 지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히틀러는 그의 동맹자인 무솔리니와 함께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40년 8월 30일 그들은 ‘비엔나 명령(Dictatul de la Viena)’을 체결

하여 트란실바니아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43,500km²)을 헝가리에 양도하라고 강요하였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독일과 러시아에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영토를 헝가리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를 II세는 이온 안토네스쿠 Ion Antonescu 장군을 지도자로 다시 임명하였다. 안토네스쿠 장군은 그가 정권을 잡은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카를 II세에게 왕위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1940년 9월 6일 미하이 Mihai가 왕위에 올랐다. 안토네스쿠 장군은 그의 독재 체제에 반대하던 정당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그의 요구는 거절되자 철위단(鐵衛團)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1940년 9월 14일 루마니아는 ‘철위단 민족국가(stat national legionar)’임을 선포하였고 안토네스쿠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Conducitorul)가 되었다. 1940년 10월 10일 안토네스쿠는 독일 군대가 루마니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12월 10일 베를린에서는 루마니아 독일간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루마니아의 경제는 독일 경제에 종속되었다. 1941년 7월 22일 독일은 러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하였고, 안토네스쿠 장군이 이끄는 루마니아 군대도 프루트 강을 건너 러시아에 진격하였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힘든 전투를 치른 끝에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였다. 미하이 왕은 안토네스쿠 장군에게 러시아와의 전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그는 미하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러시아로 계속 진격하였다. 스탈린그라드 Stalingrad(1942~1943년) 쿠반 Kuban강 유역의 전투(1943년)에 참여하였던 루마니아 군대는 크리메아(Crimea) 지역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루마니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의 평원에서 전투가 진행 될 당시, 안토네스쿠 장군은 히틀러에게 ‘비엔나 명령(Dictatul de la Viena)’을 철회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의 요구는 관찰되지 않았다. 1943년 1월 1일 미하이 왕은 ‘합법적인 평화(pacea bazat pe dreptate)’를 원한다고 선포하였고, 루마니아의 외무부 장관은 영국, 미국과 접촉하기 시

작하였다. 비록 루마니아가 영국, 미국 등 세계 강대국들과 회담을 개시하였지만, 1944년 4월 4일에는 부쿠레슈티가 폭격을 당하였다. 또한 이 당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루마니아 침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게 휴전을 제안하였지만 1944년 4월 이미 러시아 군대는 루마니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영국과 미국은 이것을 용인하였다.

1944년 8월 23일 미하이 왕은 안토네스쿠 장군을 체포하였다. 한편 러시아 군대는 8월 20일부터 몰도바 지방으로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루마니아는 독일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즉각 빠져 나오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점령 하로 들어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1944년 8월 23일에 있었던 무력 쿠데타로 해결되었고, 루마니아는 독일과의 연합을 파기하고 연합국과 제휴하였다. 1944년 8월 23일 저녁 루마니아 왕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러시아 군대는 루마니아의 몰도바 지방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9월 13일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루마니아는 러시아에게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 군에 대항한 전투에 참여해야 했다. 현실적으로 루마니아 경제는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루마니아의 모든 군사시설과 항구, 군함 등은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고, 러시아는 10만 명의 루마니아 노동자를 선발하여 러시아로 보냈다.

2. 공산화와 데즈의 독재체제

루마니아의 공산화와 데즈의 독재체제에 대하여는 Ash와 Timothy, 이숙자, 양운철, 김성기 Homepage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²⁾

2) Ash & Timothy G., "Central Europe: The Present Past."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XLII, (1995); 이숙자, "동유럽 민주화 개혁의 과정과

1944년 10월 스탈린과 치칠 간의 협상이 있었다. 이 협상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루마니아에서 90%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10%는 연합국인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여 독일과 헝가리와의 전쟁에 참여하였다. 즉, 루마니아 군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까지 진격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중 루마니아인의 인명 피해는 사상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하여 약 80만 명에 이르렀지만, 결국 루마니아는 러시아에게 점령되었다. 1944년 스탈린은 “어떤 지역을 점령한 국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제도를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스탈린의 의도는 유럽의 중·동부지역에서 소비에트화를 이룩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공산당을 설치하여 권력을 잡음으로써 이루어졌다. 부쿠레슈티에 있던 루마니아의 서녀테스쿠 Sonotescu 장군과 러네스쿠 Rodescu 장군은 척결되었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안드레이 브륀스키 Andrei Vazinski는 미하이 왕을 종용하여 페트루 그로자 Petru Groza로 하여금 국가를 통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45년 3월 6일 페트루 그로자 정부가 설립되었다. 러시아의 신임 하에서 페트루 그로자 정부는 트란실바니아의 북부지역을 통치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하였다. 미하이 I세는 그로자 정부의 퇴각을 요구하였지만 그로자는 거절하였고, 이에 미하이 I세는 그로자 정부가 공포하는 법령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츰 국내의 긴장감은 커져갔고 미하이 왕의 생일인 1945년 10월 8일에는 급기야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미국 그리고 영국 사이의 회담 결정에 따라, 1946년 2월 4일에는 서구의 국가들이 페트루 그로자 정부를 인정하였다. 1947년 루마니아가 조인한 파리

방향,” 성신여대 사회과학 논문집, (1993); 양운철·정한구 풍자,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북한에 주는 교훈』 (서울: 세종연구소, 1999);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평화협정은 바사라비아 지방과 부코비나 지방의 북부지역을 양도하고, 루마니아에 주둔하는 소비에트 군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루마니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부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루마니아 의회 선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의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선거를 조작하였다. 1944년 8월 1,000명이었던 루마니아 공산당원의 수는 1946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717,490명이 되었고, 1947년 12월에는 803,831명에 이르렀다.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의 총비서(prim-secretar)는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즈 Gheorghe Gheorghiu-Dej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이 맡았다. 공산주의자들의 지원 하에 그로자 정부는 반대당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10월 6일에는 공산당과 제휴하기를 원하던 자유당원(당수: 게오르게 토데스쿠 Gheorghe Todoroscu)들이 과연되었다. 또한 1947년 6월에는 많은 민족 농민당원들이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12월 30일 미하이 I세는 공산당의 압력으로 퇴위하였고, 그 이후 루마니아 인민 민주공화국(Republic Popolar)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1948년 6월 11일부터 루마니아에서는 국유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루마니아의 주요 기업이나 은행뿐만 아니라 그 외의 건물들이 국가 소유로 되면서 국유화 비율은 급격히 증가되었고 산업은 강제적으로 발전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국민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동분야에서 착취되었다. 1949년 농업 집단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농업 집단화 사업이 시작된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집단농장에 등록하기를 거부한 8만 명의 농민들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던 구(舊)정치가들이나 신문기자, 군인, 변호사 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루마니아는 소련에 종속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제 협력과 관련한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1949년에는 모스크

바에서 ‘경제상호원조회의(Consiliul de Ajutor Economic Reciproc)’가 창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군사 면에서도 우호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1955년 5월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Tratatul de la Varzovia)’가 창설되었다. 당시 루마니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창립 회원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동·서로 갈라졌다.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불리는 동부 유럽에 속해 있었다. 1958년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즈(Gheorghe Gheorghiu-Dej)는 당시 소련의 최고 통치자인 후르시쵸프를 설득하여 소련 군대를 루마니아 지역에서 철수시켰다. 조국과 민족이라는 개념은 공산주의나 국제 공산주의로 대체되었지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루마니아 정치권들이 석방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는 50년대 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즈는 1965년 3월 예기치 않게 사망하였고, 그 이후 니콜라에 차우체스쿠 (Nicolae Ceaușescu)가 최고 통치권을 맡았다.

3. 차우체스쿠 정권의 공산 독재 시대

차우체스쿠 통치시대에 대한 내용은 Welsh, Silviu, 이숙자, 김효수 Homepage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³⁾

1918년 1월 26일 올테니아 Oltenia 지방의 스코르니체쉬티 Scornicesti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니콜라에 차우체스쿠는 일시적으로 공산당 혁명운동에 참여하였고 1936~1944년 사이에는 수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차츰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즈와 교분

3) Welsh, H. A., “Political Transition Process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Vol. 26. (1994); Silviu Brucan, *Social Change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8); 이숙자 · 안병영 외, 『동국제국의 역사적 형성(II):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서울: 박영사, 1986); 김효수 개인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TheTropics/Equator/5197/>.

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공산당 내에서 급속한 계급상승을 이루었다. 그는 짧은 기간동안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Comitetul Central)의 위원과 농림부 차관이 되었고 1950~1952년 사이에는 루마니아 군(軍)의 상급 지휘부(Diretia Superioar a Armatei)를 통솔하면서 국방부 차관이 되었다. 또한 1955년에는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Comitetul Central)의 비서직을 역임하였다. 두뇌가 명석하고 인내력이 많았던 차우체스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당의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하여 끈질기게 노력하고 인내하였다. 1965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 24년 동안 루마니아 대통령직을 맡았던 차우체스쿠는 루마니아 대통령 중에서 외국 인사들을 가장 많이 만난 동시에 외국 방문도 가장 많이 한 인물로 남아있다. 이 시기에 그는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우상승배에 몰두하였다, 차우체스쿠의 아내인 엘레나 차우체스쿠 Elena Ceaușescu는 차우체스쿠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70년대에 루마니아는 농업에서 풍작을 이룩하였지만 농업 생산물의 수출량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루마니아인들이 풍족감을 느꼈고 국내에서의 사회적인 긴장감은 많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루마니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1967년 루마니아는 독일과 외교관계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차츰 루마니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훈련에 불참하는 동시에 루마니아에서 외국군의 군사훈련을 거부하였다. 루마니아가 모스크바의 정책에서 벗어지게 되면서 루마니아는 서구세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하여 차우체스쿠가 내세운 슬로건은 “각 국가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불간섭”이었다.

1981~1990년 사이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률은 9.6%이었다(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5%이었다). 이 시기에 루마니아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중에서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분야는 화학

공업과 기계공업, 건축재료공업 그리고 금속공업이었다. 1982년의 루마니아 산업 총생산은 1950년에 비해 34배나 성장하였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경제는 다뉴브강과 흑해를 잇는 운하건설, 석유화학공업과 체철공업 분야에서 거대한 콤비나트 건설 등 차우체스쿠의 대규모 사업으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 외에도 차우체스쿠는 체르나보더 Cernavodo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비행기나 헬리콥터, 선박 그리고 자동차 생산에도 참여하였다.

70년대 말 루마니아의 농촌 인구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김에 따라 감소하였다. 70~80년대에 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서구의 시장경제 체제와 유사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계획경제로서 다른 동유럽의 경제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루마니아 인들은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분야에서 파업에 들어갔고 국가의 위기감은 차츰 심화되었다. 1972년 루마니아의 대통령인 동시에 공산당 총서기관인 차우체스쿠는 그를 제외한 어떤 특정인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차우체스쿠에 종속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차우체스쿠는 그의 아내 엘레나를 루마니아 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그 이후 엘레나는 단기간 동안에 루마니아 공산당 당 서열 2위가 되었다. 1974년 루마니아는 대통령 중심제로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차우체스쿠 개인의 우상숭배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였다. 차츰 차우체스쿠 일가는 국가의 모든 주요 관직들을 독점하였고 차우체스쿠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제창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수용하지 않고 대신에 북한을 모델로 삼았다. 그에 따라 “인민궁전(Casa Poporului)”과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데 열중하였다. 또한 그는 대도시 중심부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대 건물들을 허물었고, 집권 말기에는 “농촌의 체계화(sistematizarea satelor)”사업을 실시하였다. 즉, 차우체스쿠는 농민들

을 위해 농촌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농촌을 소규모의 도시로 바꾸면서 농촌 마을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 사업은 전통적인 루마니아 농촌 마을을 봉괴시키는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차우체스쿠 집권 말기에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인권 침해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차우체스쿠 정권에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비밀 경찰인 세쿠리타테에게 심문과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 물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처형되었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 만 갔다. 1977년 8월에는 발레아 지울루이 Valea Jiului에서 광부들의 동맹 파업이 있었고, 1987년 12월에는 브라쇼브에서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루마니아는 차우체스쿠의 독재정치로 인하여 서구유럽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4. 89년 루마니아 혁명

1989년의 루마니아 혁명에 대하여는 Silviu, 루마니아 정보 site, 김성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⁴⁾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차우체스쿠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우선 루마니아는 반소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수 없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규제와 통제를 해체시켰고 소련이 막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을 포기하며 스탈린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자 차우체스쿠 체제의 외적 보호막이 붕괴되었다. 또 한편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의 대변혁이 루마니아의 내적 변화에 큰 압력이 되었다. 동베를린 시민 300여명이 11월 15일 루마니아 대사관 앞에서 루마니아인의 해방을

4) Silviu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7): 루마니아 정보, <http://romania.site.ro/>;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촉구했고 헝가리에서는 시민들이 루마니아 제2도시인 브라소프 시위 2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문에 촛불을 켜놓고 항의하였다. 동독, 폴란드의 언론들도 21일 차우체스쿠를 비난하였고, 소련도 루마니아의 강경노선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에 걸친 차우체스쿠의 전제 정치에서 오는 국민의 불만이 해소될 길이 막혔고 100억불에 달하는 외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국민의 내핍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식량, 연료, 전기 등 국민 생활에 관련되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우체스쿠는 기존질서를 계속 유지하려 하였으며 1989년 11월 20일 개막된 공산당 전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차우체스쿠는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했고 과학적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계속 이념투쟁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루마니아에서의 대대적인 시위는 이미 1988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우체스쿠는 7,000~15,000여 개의 농촌 부락을 해체하여 거대 농공단지를 만들고 주민들을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락들 중 1,500여 개의 부락에 헝가리 소수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차우체스쿠의 계획은 결국 이들의 분산을 통해 힘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되었다. 루마니아 인구의 9%가 헝가리계인데, 이들 소수민족은 루마니아 정부당국에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위의 발단은 인구 309,000명의 서부지역에 있는 티미소아라 시에 서였다. 보안군은 헝가리 개혁교회에 대한 시책이나 정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계 목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170여만 헝가리 소수민족 중 6만 여명이 이 시에 살고 있었다. 목사 체포와 관련해서 반정부폭동이 일어났고, 시위 군중들은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우체스쿠의 책과 초상화를 불사르고 당 지도부와 경찰서를 포위했다. 보안군은 티미소아라에 있던 군대에게 벌포명령을 내렸으나 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보안군은 명령 불복종죄로 3명의 군간부에게 발포하고 군대를 진군시켰다. 여기서 남녀노소 합쳐서 최

소한 2,000여명이 사살되었다고 한다. 사태 후 현지병원에 들어가 부상자들을 끌어내 사살했다고 한다.⁵⁾

한편 부쿠레슈티에 있던 차우체스쿠는 대통령궁 밖에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조작된 선전집회를 개최했으나 대중들의 야유로 인해 하단 하였다. 대중들은 티미소아라에서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티미소아라에서는 17일 사망한 사람들은 추모하기 위해 오페라 광장에 10여만 명이 운집했었는데, 보안군의 발사로 또 160여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매일 이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충격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상황의 급전은 정부군이 발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측에 가담하기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미레아(Vasile Milea) 국방장관은 차우체스쿠의 발사명령을 거부하여 보안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이 공산당 정부로부터 이탈하면서 정부군과 보안군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12월 22일 당 본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하려던 차우체스쿠가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25일 전격적으로 차우체스쿠 부부는 처형되었다. 차우체스쿠가 체포된 22일, 임시정부로서 구국전선평의회가 설립되었다. 보안군과 정부군과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구국전선평의회가 설립되고 차우체스쿠가 처형됨으로써 기존체제는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혁명기간 중 희생된 루마니아인의 수는 1,000명 이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차우체스쿠가 처형되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권력 쟁취를 위하여 서로 다투는 도중 많은 자료들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5. 체제 전환 이후 정치적 동향

5)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and Press: The Pulse of Europe," *A Survey of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Attitudes*, (1991).

루마니아의 혁명 이후 루마니아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내용은 Lewis, Rose, Silviu, 박창희, 안정수, 이숙자, 김성기 Homepage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⁶⁾

루마니아는 동구의 ‘김일성’이란 별명을 가진 ‘차우체스쿠’에 의해 장기간 독재적으로 통치되어 왔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한 차우체스쿠 대통령은 루마니아만이라도 사회주의를 지킬 것이다’라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으나 동유럽의 민주화, 자유화의 물결이 가져온 민중 봉기의 겨대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1989년 독재정권은 붕괴되었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일이 1990년 5월 20일로 결정되자 舊공산당 세력인 구국전선 세력과 반(反)구국전선 세력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 때 구국전선은 광부들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열기를 저지하였다. 당시 부쿠레슈티 대학광장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루마니아인들의 시위가 있었고, 일리에스쿠는 시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부들을 부쿠레슈티로 불러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90년 대통령 선거에는 11개의 정당들이 참여하였고, 구국전선의 이온 일리에스쿠는 85%의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국전선은 의회 선거에서도 하원(Camera Deputatilor)에서 66%, 상원(Senat)에서 67%에 해당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1992년

6) Lewis, P. G., “Theories of Democratization and Patterns of Regime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3. (1997); Rose, R., “Ex-Communist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67. (1996); Silviu Brucan, *Social Change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8); 박창희, 『동구권 국가들의 그 후 국제문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5); 안정수, 『동구 사회주의의 실험의 전말, 소련-동구-중국-북한: 그 변화의 실상』(서울: 문우사, 1991); 이숙자, “동유럽 민주화 개혁의 과정과 방향,” 성신여대 사회과학 논문집, (1993);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2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구국전선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92년 9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에서도 1990년에 당선된 사람들이 재당선되었고 이 당시 구국전선(Frontul Salvarii Nationale)의 명칭은 민주 구국전선(Frontul Democratiei si Salvarii Nationale)으로 개편되었다. 1992년 대통령선거 이후 일리에스쿠는 니콜라에 베카로이우 Nicolae Vacaroiu를 수상으로 임명하였지만 베카로이우는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민주구국전선은 대부분 舊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주 구국전선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국민 총생산의 감소,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수출의 감소, 외국자본의 국내유치 실패 등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특히 부패와 정경유착은 루마니아 경제성장을 둔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루마니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루마니아인들의 생활수준도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혼탁한 기회를 틈타 개인의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런 시기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정당들은 새로운 민주 정당들과 함께 연합하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는데 실패한 루마니아 민주회의(CDR)는 이로부터 4년 후인 199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카레스트 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루마니아 민주회의가 추대한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Emil Constantinescu가 당선됨으로써 이온 일리에스쿠와 그가 이끌던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artidul Democratiei Socialiste din Romania)-민주 구국전선(Frontul Democratiei si Salvarii Nationale)에서 루마니

아 사회민주당(Partidul Democratiei Socialiste din Romania)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은 참패하였다. 실제로 애밀 콘스탄티네스쿠 대통령은 선거에서 사회 민주동맹(Uniunea Sociala Democrată)과 형가리 민주연합(UDMR)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루마니아 의회 선거에서도 연립 내각인 루마니아 민주회의와 사회 민주동맹이 승리를 거두었다. 사회 민주동맹은 페트레 로만이 이끄는 민주당과 세르지우 쿠네스쿠가 이끄는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artidul Social-Democrat Romn)이 연합한 정당이었다. 舊사회주의 세력을 밀어내고 승리한 요인으로는 89년 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계속 성숙해 온 루마니아인들의 민주의식이 舊사회주의 세력을 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루마니아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1996년 12월의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정권 교체는 전문 정치인들로부터 태크노크라트들로의 교체라는 시각과 구 공산권 지도자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었다. 당시 콘스탄티네스쿠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젊은 개혁가이자 초대 수상이었던 비토르 치오르베아(Victor Ciorbea)는 정직하고 유망한 태크노크라트였으나 정치적 리더쉽이 부족하였다. 그는 정권 인수 이후 대 국민 성명을 통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수술하고 새로 일어설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감격적인 연설을 하며 국민들을 이끌었다. 이 당시만 하여도 루마니아의 개혁은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곧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된다. 리더쉽의 부재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가져왔으며 이런 불안정한 권력구조는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사유화와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득을 본 집단은 극소수 관계자들뿐이었다. 상류층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콘스탄티네스쿠 정부

는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만다. 콘스탄티네스쿠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해외로부터의 지원 부족도 아니며 국민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와 그로 인한 부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개혁에 있어서의 시간적 문제였다. 구조 조정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했다.

지난 2000년 11월 26일이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21세기를 향한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었다. 이날 루마니아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국회 의원 등 선출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주어졌다. 결과는 예상되어진 것이었으나 또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1차 투표 후 루마니아인들은 극우주의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공산주의자이며 그리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있었다. 12명이 입후보한 1차 예선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PDSR(루마니아 민주사회당)의 이온 일리에스쿠와 PRM(대 루마니아당)의 바딤 투도르 사이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결과는 일리에스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선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집권당의 몰락과 PRM라는 극우 정당의 급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출에서는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 2주 후 결선 투표가 벌어졌으며 예상대로 PDSR의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일리에스쿠의 집권은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루마니아 정치 구조의 특성상 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일리에스쿠는 1989년 이후 1996년까지 루마니아의 대통령직을 지내왔던 인물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노련한 정치가이며 크고 작은 비리 사건에 많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에스쿠의 재등장 가능성은 벌써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었다. 그

는 기본적으로 좌파이며,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반개혁적 성향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최소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구조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일리에스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리에스쿠의 득표는 늘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늘 표를 얻는 대상으로부터 표를 얻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표를 얻었을 뿐이다. 단지 국민들은 무능하고 정치력이 부족한 현 집권세력에 등을 돌렸다.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루마니아의 장래가 그리 밝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며, 많은 정치적 창구들이 폐쇄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쿠레슈티 대학의 한 교수는 일리에스쿠가 자신의 지난 시절의 잘못을 알고 세로운 사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리에스쿠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변화가 한창이다.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차우체스크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영향에서 벗어난 후 자신들 고유의 민주주의나 법치국가형태를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에로의 전환’보다는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을 위한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공산독재체제에서 ‘비공산 독재’로의 전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역사상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혁명 후 루마니아의 경제적 동향

혁명 후 루마니아의 경제적 동향에 대하여는 Blanchard, Silviu, 양

윤철·정한구, 김성기 Homepage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⁷⁾

루마니아 경제는 혁명 전에 이미 50%이상의 산업이 마비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1996년까지 루마니아는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뚜렷한 경제 개혁조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미흡한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루마니아의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특히 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혁명 후 그 영향과 더불어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산성이 없는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수입의 급증과 구조적인 관료의 부패가 더욱 경제를 악화시켰다. 무엇보다도 89년 혁명으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나 총선 이후 보수 세력이 집권하여 시장 경제로의 경제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경제 개혁 정책의 미비와 국내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 지원의 부족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 1992년 말까지 실질적인 경제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개혁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는 새로운 내각이 1993년 초부터 개혁 정책을 가속화하기 시작한 이래 1993년 하반기를 고비로 점차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인플레 감소, 무역 적자 축소 및 환율 안정 등 경제 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1996년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반(反)공산 계열인 중도 우파의 신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서방 국가 및 국제 기구(IBRD, G-24)로부터 자금 제공 약속이 늘고 있어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7) Blanchard, Oliver J., *The Economics of Post-Communist Tran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Silvius Brucan, *Social Change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8); 양윤철·정한구 공동,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북한에 주는 교훈』 (서울: 세종연구소, 1999);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그러나 해외 자본가들이 루마니아의 투자를 꺼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다시 루마니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합법적으로 순조롭지 않으며 높은 관세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관료적인 행정 서류들 도 문제가 되었다. 1996년도 DACIA FELIX라는 민간 투자 은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제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자진 파산하였다. 수많은 루마니아인과 외국인들 투자가들의 분노를 만들었지만 정부는 전혀 이 문제를 민감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96년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체제 전환 이후 최초로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한 루마니아 민주회의와 사회민주연합의 新연정정부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新정부는 1997년에 들어가면서 가격 및 환율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산업 구조조정 및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연정 내부의 이견 대립과 개혁 입법조치 미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물가 불안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치오르베아(Victor Ciorbea)총리와 후임 라두 바실레(Radu Vasile)총리가 국정수행능력 결여와 개혁부진에 대한 책임을지고 사임하였다. 세 번째 총리로 2000년 대선에 출마한 무구르 이사레스쿠(Mugur Isarescu)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루마니아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 S&P사와 Moody's사는 루마니아에 투자 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게 되었다.

한편, 1992~96년 간 SOF의 민영화대상 기업체 총 8,700개 중 약 3,000여 개 기업체만이 민영화되었다. 민영화 업체 중 대부분은 중소 기업이었으며, 이처럼 저조한 민영화 실적과 함께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대부분 국영기업이 부실화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종전보다 빠르게 추진하여 1,304개 기업체를 민영화하였다. 이에 따라 콘스탄티네스쿠 정부는 1998년 IMF에 대기성 차관(US\$430만)을 요청하였고, IMF와 IBRD와의 협의 하에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늘어난 실업자와 고령 연금자들을 빗대어 다음과 같은 유행어가 있었다. “차우체스쿠는 젊은 이들을 채용하고 일리에스코는 실업자로 내쫓는다.” 일리에스코가 그의 두 번의 재임을 통해 그가 루마니아 경제에 지운 외채는 30억 \$(96년)이다. 96년까지 퇴직 정년은 55세까지였다. 현재는 60세까지 연장되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없어서 젊은이들은 실업자로 방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직장이 없는 젊은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Go West”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많은 수의 밀입국자들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추방되었지만 헝가리→이탈리아, 체코→독일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저임금 근로조건으로 이탈리아에 집단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2000년도 그가 다시 재임됨으로써 누적된 실업과 사회적 불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III. 체제 변화에 따른 루마니아의 사회심리적 갈등

본 장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200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루마니아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특히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겪은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과거사 처리와 연관된 갈등

1) 새로운 지도집단 등장과 연관된 갈등

동구권에서의 공산 정권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다른 구 공산체제의 동구권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과정을 겪어왔다. 즉 차우체스쿠의 24년 간의 독재가 끝난 후 이루어진 선거에서 역시 구 공산당 최고위 지도자였던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그 후 다시 재선이 되었다. 즉 과거 공산당 시절과 전혀 변화 없는 지도층들이 형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리에스쿠 정권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고, 급격한 경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서 많은 사회적 불만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에서 좀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한 콘스탄틴쿠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기대를 모았고,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시장 개혁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다 끊고, 보조금을 없애는 내용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임금은 안오르고 가격은 모두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개혁은 결국 다시 실패하였고 2000년에 일리에스쿠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다시 과거의 기득권자들에게 정권이 돌아간 것이었다. 그는 경제 개혁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체제를 바꾸어 보겠다는 주장을 하여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공산체제 붕괴 후 개혁 과정은 루마니아에서 개혁을 이끌 지도집단이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 제도의 깊질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지도 집단이 지금도 과거 공산체제 시절이나 다름없는 생각과 논리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에서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달리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차우체스쿠의 독재기간이 24년 동안이나 길게 지속되면서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여 그 저항 집단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였다는 것이다. 지식

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가 이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면서 일종의 공동 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구 정권의 붕괴 후에도 새로운 지도 집단이 등장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둘째, 차우체스쿠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저항운동은 트랜실바니아 지역의 형가리계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의 저항 운동이 점차 전체 루마니아 사람들의 반정부 시위와 저항으로 바뀌어 가서 결국 정권이 붕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주도한 형가리계 사람들은 루마니아 내에서 소수민족이고 일반 루마니아 사람들은 평소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형가리계 사람들이 초기에 저항 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지도 집단을 형성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셋째, 차우체스쿠라는 지도자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많은 실정을 하였고 심한 독재를 하였음에도 그는 대중 선동과 조직에 있어 능숙한 사람이었고, 일반 국민들은 그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차우체스쿠의 실정에 반대하여 데모를 하였으나, 그것이 정말로 차우체스쿠를 처형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혁명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차우체스쿠는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여 버렸고, 누가 왜 죽었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일부에서는 그 혁명이 구 정권의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일종의 계획된 궁정혁명이었다는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루마니아가 스스로 지도집단을 선택하는 민주제도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혁명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루마니아는 과거 역사상 한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명이후 새로운 지도집단을 가지는데 있어 일종의 유예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루마니아는 공산체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구 공산체제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대로 국가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개혁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가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도입하였으나 그 운영 방식은 과거 공산시절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2) 과거 역사 평가와 연관된 사회심리적 갈등

차우체스쿠에 대한 루마니아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은 그 개인에 대한 의견인 동시에 구 공산체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생각에 연관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4년이나 국가를 통치한 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단순하거나 분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차우체스쿠의 독재 밑에서 신음하던 루마니아 국민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곳에서 만난 루마니아 사람들의 일반적인 차우체스쿠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인 비판 일변도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좀더 친 차우체스쿠적 발언들을 많이 하였고, 지식인들은 반 차우체스쿠적 발언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연구자들이 만난 일반 서민인 한 운전기사 (남, 58세)는 차우체스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차우체스쿠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정치 조직을 매우 잘 하는 사람이었고, 24년의 책임 기간을 통하여 70년은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이루려고 하였다가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그의 아내를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는 수도인 부쿠레시트의 모습을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큰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였다. 인민궁전을 짓고, 유럽에서 가장 큰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실제로 권좌에 계속 앉아 있었다면, 그는 그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분위기는 차우체스쿠에 대한 그리움조차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그럼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냐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

“그렇지만은 않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특히 말하는 자유가 없었다. 외국인들과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루마니아 일반 국민들은 혁명 이후의 경제적인 혼란과 사회 질서의 혼란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았다.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루마니아에서 오래 살았던 한 한인교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차우체스쿠 시절에는 전몰 밖으로 물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체포하였다. 그때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들었고, 노는 사람도 없었고, 치안도 좋았다고들 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옛날을 그리워한다. 혁명 전에는 1주일에 한번은 야외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도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월급의 반이 나와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우체스쿠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구 공산 국가고 비슷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과거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좀더 입체적인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사회학자에게 차우체스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든 사람은 변화해 간다. 집권하던 65년의 차우체스쿠와 권좌에서 밀려나던 89년의 차우체스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변화를 거친 사람이었다. 그는 전임자 테자와 비교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71년부터 시작된 개인 승배의 추구 등은 광적인 것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도록 하였다..... 89년 당시 그는 늙고 병들고 쓸모 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영원히 안 늙고 안 죽을 영웅처럼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안경을 끼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이 보는 서류도 큰 글자로 인쇄하도록 하여 자신도 안경을 끼지 않고 서류를 봄으로써 늘 자신을 더 쉽게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일종의 심리적인 사기를 친 것이었다. 내가 그 두 종류의 차우체스쿠 중 누구를 선택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지..... 68년 프라하의 봄이 되자 차우체스쿠는 소련의 진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루마니아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1971년 차우체스쿠가 중국과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그는 자신도 일종의 문화혁명을 루마니아에서도 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인 승배가 시작되었다. 즉 공산주의의 시스템에서 한 개인으로 권력의 핵심을 바꾸어 놓겠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공항에 오고 갈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즉 생명의 위협보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차우체스쿠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로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 공신치하는 테자가 통치한 1945년부터 65년까지와, 차우체스쿠가 통치한 65년부터 89년까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 기자는 차우체스쿠 시절이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절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45년부터 65년의 기간도 차우체스쿠 시절만큼이나 좋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 시절에는 감옥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도 투옥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에 비하여 89년 당시에는 정치범이 거의 없었다. 89년 혁명 이후 정치범으로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다. 차우체스쿠 전의 통치자였던 테자는 농민이 공동 연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에 비하여 차우체스쿠 시절은 더 나은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차우체스쿠 시절 가장 피로웠던 것은 개인 숭배였다. 그는 그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였고, 자기 같은 인물은 500년에야 하나 나올까 말까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였고, 자신을 찬양하는 글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는 것이나 자신은 고통스러웠다. 그러한 생각의 통제는 행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차우체스쿠 시절에는 사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비밀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했다. 지식인들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였으며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곁으로는 차우체스쿠 만세를 외쳤으나, 내면에서는 그를 비판하였다. 집회에서는 모두 다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각 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가장 극단적인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런 루마니아의 경험은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그 시절에 대하여 또 다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 이후 현재의 가난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차우체스쿠가 루마니아에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그는 일찍 하야를 하였어야 했다. 그는 루마니아가 변하는데 가장 큰 장애였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중간 정도의 지식인이었는데 결국은 사기꾼이었다. 그의 주위에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서유럽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등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의 결정에 의하여 루마니아는 체코의 프라하의 봄 때 소련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동구권 국가가 되었었다. 또한 동구권 중 유일하게 서독,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편집증적(paranoid) 양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주변에 지식인을 다 몰아내었고, 혀를 잘 놀리는 사람들만 두었다. 그는 아내를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실수를 하였다. 자신을 100~200년에 하나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인간으로 믿었다. 외체를 너무 급히 갚

겠다는 생각을 하여 국민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치르게 하였다. 결국 국민들을 가난에 허덕이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찬양하게 하는 집회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았고 반대 의견을 말하게는 하였다..... 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행동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5~10년을 광란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차우체스쿠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 과거의 악에 대한 처벌과 연관된 갈등

실제로 40년 이상의 공산독재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 청산의 문제였다. 그러나 구 공산당 출신 지도자들이 그대로 지도자 역할을 다시 맡은 루마니아에서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가 되었다. 한 학자에게 조심스레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舊체제 하에서 루마니아에는 500만 명이 공산당원이었다. 2,200만 인구 중 500만이었다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인들은 거의 다가 당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도록 강요되었고, 보안 경찰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것을 감시하였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억지로 협력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비밀 경찰에 협조하거나 차우체스쿠에 반대하지 못하는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하면서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 둘 씩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몇 개의 사회적 집단이 생겨 서로 그들의 과거 정권에서의 협조한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죄책감을 가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극악한 죄였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었다. 실제로 루마니아와 같은 사회 변동을 겪는 곳에서 마녀 사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런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를 따지게 되면 사회는 혼란을 가지게 된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혁명 후에 루마니아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다시 공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적인 처벌은 하였어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없었다. 형사재판과 정치적인 처단은 다른 것이다. 형사 재판은 기존의 법에 의하여 법을 어겼을 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 이전에 루마니아는 체제에 순종하여야 하고 차우세스쿠를 숭배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다. 과거 시점에서 합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을 그 후에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일인 것이다..... 혁명을 가지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예를 들면 그가 공산당원이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말포 명령을 내린 사람들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명이 있었다..... 현재 루마니아 법에는 비밀경찰에게 누가 밀고를 하였는지를 알리는 법이 있다. 그러나 그 공개는 아무 때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중요 직책에 임명되게 될 때만 그것이 공개된다. 그들의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비밀경찰과의 협조, 밀고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舊체제에서 비밀경찰은 아무 때고 와서 어떤 것인지를 물어 보고 갈 수 있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밀고나 정보 제공으로 볼 수는 없었다. 비밀 경찰에는 그런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지도 않았다..... 루마니아의 속담은 잘못을 한 사람을 달마시안 개라고 부르는 것이다. 완전히 겪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회피도 않은, 그런 선과 악이 뒤섞인 것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시절 우리 모두는 달마시안 개였다. 아무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논리 하에서 루마니아는 과거의 악에 대한 청산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로를 다 달마시안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도 아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은 舊체제 하에서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자명하다. 이것은 루마니아에 있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었다.

2. 구체제에서 파생된 수동성과 두려움에 연관된 갈등

1) 수동적 국민의식의 문제

지도부의 변화가 없이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산체제 하에서 모든 것은 독점 체제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늘 특권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자본주의 체제라는 돈이 더 많이 둘 수 있는 체제하에서도 그런 특권의 독점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의 부정부패로 연결되었고, 루마니아를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일반 서민들, 학자들, 경제 관료에 이르기 까지 모두 인정하는 가장 큰 루마니아의 문제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부정부패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매우 무감각하게 있다는 것이었다. 특권과 기득권에서 면 일반 서민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산 체제하에서 특권층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익숙하게 보아왔고, 그것에 감히 도전하거나 불만을 이야기 해 본 경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부정부패 속에서 점차 악화되는 일반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만을 느끼고 있고 참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움직임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었다.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혁명 후 정부가 민영화에 투자한 돈은 매우 적다. 주요 국가 산업들을 대부분 외국 기업들에게 넘겼고, 그들은 국가 산업을 인수한 후에 독점을 통하여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돈을 벌었다. 이동 통신에 있어 그리스의 예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루마니아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쌈값으로 공장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커미션을 먹는 일들이 빈번히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값어치있는 것들이 모두 쌈값에 팔려 나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은 이제부터 잘 하겠

다고 다짐하고 과거의 부정부패자들을 체포하고 재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그들은 언제나 슬그머니 석방되곤 하였다. 외국 기업인들은 이런 과정에서 사기 치고, 구속되고, 재판 받고, 그리고는 다시 석방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의 2,200만 명 중 100만 명 정도는 매우 부자로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밀수품 판매가 큰 이익을 남기고 있고, 집시들이 그런 식으로 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관검사, 관료들도 밀수에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은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마니아에 머물고 있는 한 한국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의 재산 사유화 과정에 있어 별로 눈에 띠는 일반인들 사이의 갈등은 없어 보인다. 이미 과거 통치 체제에서 권력이나 정보,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던 힘있는 사람들이 다시 돈들을 선점하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설은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이런 생활 태도는 이들의 오랜 통제 생활 경험에서 의하여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군대 생활과 비슷한 것이다. 군대에서는 상황에 얹매여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조건에 그대로 맞추어 사는 것이다. 의식과 모든 생각은 더 이상 자유롭게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 더 뛰지 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종의 적응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이다.....이것을 루마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라틴기질과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태도들이 있다. 라틴기질이란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인 활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즉 이들은 라틴 기질을 가지고 있어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별로 않고, 돈을 벌면 바로 다 써 버리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여 여름에는 모두 바다로 간다.....”

그러나 더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은 라틴기질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혁명이 있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젊은이들 중에 조금씩 자신들이 일을 더 하여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의외로, 세상은 확 바뀌었음에도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갈팡질팡 하기 보다는 그저 과거부터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다.....예를 들어 루마니아에는 아직 길거리에 노점상이 없다. 정부의 통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런 정부의 통제를 거스르면서 까지 라도 자신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면서라도 노점상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는 GDP의 60%가 지하경제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들이 무엇을 하여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세금을 안내는 길거리의 좌판이 없는데도.....”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특권층들은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그런 돈을 벌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에는 아직 위험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즉 일반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없고, 힘있는 자들은 암시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돈을 벌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감히 아직 자신들이 나서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서민들의 태도를 특히 그들의 수동성과 연관시켜서 또 다른 한국 교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곳 루마니아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가 공산주의를 더 싫어하게 된 이유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을 철저하게 희망 없이 만들었고,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였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여기 사람

들이 매우 수동적이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저 창문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외국인인 내가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고 물어보고 하여야 따라 들어가 만지고 물건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사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 피자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도 그것을 감히 가서 바꿔 오지 못한다. 이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 분노를 느낀다.....”

공산주의 체제는 소비자보다 공급자 우선의 체제이고, 그런 가운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직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 왔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인간들을 철저히 수동적으로 만들었던 공산독재체제는 그 대신에 사람들의 힘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을 한다.

“.....따라서 舊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스포츠와 성의 자유로 해결하려 하였다. 축구에 전 국민이 열광하였고, 수없이 많은 이혼이 이루어졌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오는 루마니아 23개 가정 중 이혼을 한번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는 두 가정 만이다. 현재 루마니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생긴 것이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다. 따라서 쉽게 가정이 깨지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쉽게 미워한다. 청소년들이 말도 혁명 전에는 존칭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89년의 혁명은 그 동안의 모든 권위를 다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다.....”

정부와 체제에 순응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킬 다른 방법을 열어 간 것이 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이 되고 있었다.

2) 국민 마음속의 두려움의 문제

사실,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는 과거 루마니아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공산 시절 사람들의 심리를 규정하는 한 단어

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혁명 후 지금도 그 단어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한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혁명 후 1992년 사회학회에서 나는 차우체스쿠 시절 루마니아인들이 경험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사실 그러한 두려움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두려움보다도 주관적인 두려움이 더 커다고 할 수 있겠다. 모두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누군가 대화를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하였는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감시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그랬던 것이다.....”

“.....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명의 위협-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국가기관의 비밀 경찰 등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실제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정치범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고, 테자 시절에는 다뉴브 강변에서 수 천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2. 자유의 위협-감옥에 갈 것에 두려움이다. 테자 시절에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나, 차우체스쿠 시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석방되었고, 공포는 적어졌다. 그러나 그 공포는 늘 존재하였다. 3. 실직의 위협-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 4. 강등의 위협-직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일반인들은 보통 실직의 공포와 강등의 공포를 가지고 살았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위협들이었다.....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큰 것이었다”

위의 이야기가 혁명 전의 두려움을 이야기하였다면, 혁명 후의 두려움을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금 루마니아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신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프면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결국 직장에서의 해고가 가장 두려

운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직장은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서유럽, 미국으로 간다. 루마니아에서는 직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아파트 임대료가 자신들의 월급보다도 더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월급, 연금이 적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파트 보조금을 줄 예정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연관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한 의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혁명 이후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신체·의학적 질환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인 심근경색의 증가이다.....정신·신체·의학 영역의 문제가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많이 있다. 우울증이 전 국민의 40%에서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였다. 내가 보기에도 2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외 두드러기, 전선, 심근경색, 천식, 알레르기, 암의 증가 등이 있었다. 매일의 일반적인 불안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약물 남용이 크게 심각하다.. 현재 루마니아의 자살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여자들은 능력 이상으로 일에 매달리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 여자들은 집안 일에 충실했고, 직장 생활의 업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 후 미국의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여자도 밖에 나가 돈을 벌고, 그래서 가장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미국 부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실제로 많은 일을 외부에서 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성적으로도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담배를 많이 피고, 마약을 손에 대게 되었다. 약은 마리화나부터 수면제, 진통제(benzodiazepine, norvalgin, meprobamate 등) 등을 과용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심정들이 되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포기. 이것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었다.

3. 과거 가치관의 붕괴와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혁명 후, 루마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긴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하여 한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여 이야기 해주었다.

1) 과거 가치관의 해체와 그 극복의 문제

“첫째로, 가장 큰 변화는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기존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루마니아 사람들은 국가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즉 국가가 한 개인보다 우선하고 그 국가를 위하여 개인은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정권은 끊임없이 그것을 교육하고 선전하였다. 루마니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믿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다고는 할 수 있다. 혁명 후에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특색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혁명 전에는 나 자신도 신 앞에서의 실존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혁명 전에는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누군가는 10 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3헥타르의 땅을 가지는 있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이 있고 나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개인사유화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의식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각 개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정부는 땅을 개인에게 사유화하면서 적은 양만을 주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혁명 전보다 더 가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성을 더 작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개념의 변화들을 어떻게 재정립 할 것인가가 루마니아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새로운 제도와 가치관형성의 어려움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둘째로, 루마니아의 변화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제도와 방법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혁명 전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민주주의 문화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 공산주의 정부가 가르쳐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니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러시아 시인인 “마르야 쿠브스차”의 시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는 시가 있다. 그 시는 공산당 정부는 각 개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각 개인이 이제 어떤 것을 옳고 그른 것으로 보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고민을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제 정부는 매우 적은 영향력만을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공산당원이 500만 명이었으나, 이제는 보통 한 정당의 당원이 수백 명 정도이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각 개인은 오직 각 개인별로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찬성하지만, 어떤 이는 공산주의를, 어떤 이는 왕정 복귀를 원하고 있다. 지금 루마니아인은 어떤 한가지 정치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거쳐 그것을 하나로 수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없고, 그러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루마니아 사회의 일종의 슬로건이 있다면 그것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임미누엘 칸트는 “인간은 인간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지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인간은 점차 수단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단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루마니아에는 “난폭한 자본주의(wild capitalism)”가 들어와 있고 나는 그것이

슬프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동체의식, 참여, 우정, 단결 등이 중요시되는데 루마니아에는 혁명 후에 그런 것이 없어졌다.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종의 사회 규약(social code)으로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도록 하였었다. 그것은 일부분은 강요된 것이기도 하였으나 어찌 되었든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당시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회 규약(social code)이 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회 규약을 만드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유”이다. 혁명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뒤엉키면서 혼란에 빠진 것이고, 사회 규약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 루마니아는 자유를 사용해 본 경험의 부족이 문제이다. 자유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루마니아에서는 안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결정에 있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 회사 사장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다. 그 개인인가? 회사인가? 사회인가 하는 것이다. 회사 사장은 지금 그런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와 연관된 경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루마니아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장치(legal framework)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장치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내가 3년 간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였는데, 여기서 법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웠다..... 북한도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드는데 있어, 남한과 같은 제도(institution)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남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마니아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주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루마니아 TV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구의 TV 프로그램이었다. 루마니아는 아직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매우 미약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외국 것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 심리학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잘못된 서유럽의 영향으로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 마약, 범죄가 차우체스쿠 시절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권리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찰은 하늘을 향하여 공포탄을 쏘는데 도둑은 경찰을 향하여 실탄을 써서 죽이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미국 메스미디어의 영향이다. 미국 TV 프로그램의 영향인 것이다. 차우체스쿠 시절에는 TV 방영이 두 시간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TV가 하루종일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을 루마니아 방송국이 직접 다 하지 못하여 외국의 프로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것 대부분이 저질 프로그램들이다. 온 가족이 보는 TV 프로그램에 5분 이상 성관계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한다. 과연 할머니가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는가? 미국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저질 문화를 가지고 왔다. 도둑들은 그것을 보고 범죄를 하고 경찰을 따돌리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하게 한다.서유럽의 영향으로 우리는 일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편안히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 서유럽의 부정적인 것들만이 들어온 것이다. 마약, 범죄 등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를 한다.....”

루마니아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한 한국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현재 루마니아 젊은이들은 무조건 돈이 최고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TV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유도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인다.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밀수를 한다. 작은 물건들을 외국에 나가 사들여와 루마니아 국내에서 이익을 불여 파는 것이다.”

또 다른 한국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현재 루마니아 사람들은 누구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즐기려는 태도가 강하다. 그리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축구 하나이다. 이 민족에게 최고의 영웅이 있다면, 그것은 축구선수들이다. 이들은 역사에 대한 의식도 그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의식도 별로 없다.....”

3) 민족 정체성 형성의 문제와 갈등

사회학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루마니아인의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신을 유럽인이라는 큰 개념보다 루마니아인으로 규정하는 개념들이 강한데, 개혁 과정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계속 그런 경향을 가질 런지, 아니면 유럽인이 되고 EU에 가입하고 그래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민족주의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구 공산주의 시절의 민족주의 신화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의 과거 역사 속의 영웅들이나 전통을 별로 중요시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리고 루마니아인 스스로 자신들이 게으르고 어리석고 도둑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까지 보인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3개 공국을 통일한 미하일 비타쥬 같은 인물을 그저 모험가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고. 루마니아 독립을 위하여 노력한 알렉산드리아 이흔코쥬를 여자를 위하여 자녀를 버린 사람 정도로 묘사한다. 그런 것이 고등학생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흐름은 민족주의를 깨고 유럽주의를 가지려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유럽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사람은 유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독일인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하였던 한 사회심리학 학회에서도 “온전한 민족주의자가 온전한 세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였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 자신감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유럽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루마니아 인들에게는 아직 이해되기 힘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다면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은 이에 대하여 “사회적 사고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썼다. 나는 이 책에서 다면적 문화(multiple culture)와 다면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강조하였다. 만일 누가 나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나는 나를 “루마니아 사회심리학자이고 유럽인이며 세계인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는 혁명 후 국가 정체성의 위기, 사회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다. 사실 이것은 동독에서도 그러하였다. 차우체스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악마로 비난하면서 그것으로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 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제 루마니아가 EU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유럽주의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경제 개발에 있어 이런 사회 정신(social mentality)은 매우 중요하다. 즉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가리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경제 재건에 있어 중요한 힘이다. 그러나 우리 루마니아는 다민족 사회이다. 루마니아계 뿐만 아니라 형가리계, 접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민족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ethnic peace)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고는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호 이해와 안정성의 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런 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경제적으로는 퇴보를 의미할 때가 있다. 그것이 루마니아의 갈등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갈등을 한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생각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우리는 루마니아의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차우체스쿠 시절에 많은 음악가들이 루마니아를 버리고 떠났다. 약 40개의 오페스트라를 구성할 만한

인원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다. 그들은 세계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가 그들에게 투자한 것이 다 혀되며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매우 훌륭하다. 그것이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우리 루마니아인은 인내심이 강하다. 우리의 종교인 루마니아정교는 무슬림 등 다른 종교들과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가치가 붕괴되고도 새로운 가치는 생기지 못하여 나타나는 혼란은 루마니아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4) 과거 교육과의 단절의 문제

그렇다면 루마니아 국민들이 과거 공산시절에 받았던 공산주의 사상은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받은 교육은 지금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학교 교육 내용의 90%는 서구식의 실제적 교육이었다.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공산체제 마지막 20년 동안 그런 교육의 효과는 0%였다. 젊은이들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1~2주에 한번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만을 강의하였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90%의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다”

실제로 한 여대생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이 받은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차우체스쿠가 살해당한 89년에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인 10살의 소녀였다. 차우체스쿠가 통치하던 시절, 학교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소년대나 소녀대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 나도 소녀대에 들어갔다. 그 집

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창피한 것이었으나, 일단 들어가면 제복을 입어야 하고 방과후에도 여러 가지 조직 생활을 하여야 했으므로 나는 그런 활동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은 그다지 많이 않았다. 차우체스쿠에 대한 개인 승배도 그다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기억은 없다. 아마도 내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작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하였을 것이다..... 1989년 차우체스쿠가 총에 맞고 죽은 장면이 TV에 나왔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라 울었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자 학교의 소년대, 소녀대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좋았다..... 지금 나도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사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것이 당장 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당장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직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루마니아에서 공산 시절에 이루어진 공산주의 교육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것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그런 체제하에서 살아남는 일종의 일상 생활 속의 문화로서, 그리고 일반 노동 문화나 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과 그다지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4. 새로운 경제 체제에 적응하며 가지는 심리적 갈등

수십 년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새로 적응하고 생존하려 노력하면서 가지는 갈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루마니아 경제학자 (Ioan Popa 교수 및 Gheorghe Dolgu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과도한 생활 수준 향상 기대와 소비성향의 증가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자본주의만 도입하면 바로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너무 급하고 크게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도입은 가격 자율화, 국민들에 대한 경제 지원의 감소, 경쟁 도입, 대량 실업 등을 동반함으로 오히려 경제 수준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것을 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혁명 후 루마니아에는 경제 정책에 있어 많은 실수가 있었다. 폴란드는 가격 자유화를 급격하게 하였으나 루마니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초기에 루마니아도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시도를 하여 보았었다. 그 때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였으나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혁명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당장 그들 삶의 큰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국가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책은 좀더 면 것을 보니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 체제와 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하였으나 루마니아는 아직 자유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투자할 나라가 있으나 루마니아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국민들은 자본주의가 도입되면 바로 잘 살게 된다고 기대들을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는 그들의 수입 증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도한 소비 성향 증가로 나타났다. 한 경제학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는 차우체스쿠 시절에 극단적으로 가난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소비성향도 사실 매우 적었다. 그러나 혁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개인 소비성향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투자는 매우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비 성향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비생산분야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생활 수준 향상의 기대심과 수입 증가에 앞서 나타나는 소비 성향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되었고 그것

이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이었다.

2) 새로운 경제 문화 창출의 어려움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 성향 증가가 생산적인 근로 의욕 상승과 연결된다면 그것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아직 그런 소비 욕구들이 생산적 근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공 산체제 하에서 수동적으로 일하며 공평한 분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경제 관련 공무원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혁명 후 우리는 새로운 기업 정신(mentality)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어렵다. 공산시절 기업이란 오직 국가기업 아니면 지하 불법 기업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양성화 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과거 기업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다..... 노동 조합은 오히려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영화를 촉진하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 단위에서는 반대하는 도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기업중심 사고(business oriented mind)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주민들은 혁명 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하루아침에 그런 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필요로 되는 문화와 정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루마니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 경제 관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1991년에 우리는 프랑스식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것을 도입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앵글로 색슨식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혼란이 있었다. 프랑스식 제도는 좀더 행정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것에

비하여 앵글로 색슨식 제도는 좀 더 기업적 정신을 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운영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있어 루마니아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루마니아인은 라틴민족이다. 같은 라틴족인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 우리도 그런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르만인 독일은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일단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잘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맞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3) 舊경제 관행의 극복의 어려움

이와 함께 루마니아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과거 공산 체제하에서의 경제 관행에서 계속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루마니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3대 약을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독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이다. 둘째, 부정부폐이다. 이것은 매우 넓게 퍼져있다. 셋째, 체제(institution)의 협약이다.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없다.”

“루마니아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시절에 계획경제를 한다면서 너무 계획을 세운 경험들이 있어 이제는 계획을 아예 안 세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분명한 계획은 있어야 한다. 둘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정치, 기업, 은행 제도 등에서 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 투자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산업 정책(industry policy)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루마니아는 혁명 이후 그러한 아이디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불균형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U는 아직 루마니아가 기능을 하는 시장(functioning market)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계획 경제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렇다고 작동하고 있는 시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경제 제도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루마니아 국민들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생활 속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는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 경제 관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늦은 것은 사람들의 심리 와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은 어떤 나이를 넘기면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기존의 늘 해오던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한 학술대회에서 학자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20년은 걸릴 것이라 발표하자 사람들은 화를 내었다. 바꿀 것이라면 왜 당장 바꾸지 못하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EU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데 30년이 걸렸다.”

4)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역시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현재 루마니아의 대학들은 자본주의 교육을 위한 교과목 변경을 급속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란 학교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현장이 모델이 되어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루마니아에는 없는 것이다.....그러면서 오직 돈만이 이들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

“..... 사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자본주의 교육은 없다. 그것은 교육을 시켜 될 일이 아니다.”

“..... 경제 전문가인 나의 부모님들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 환율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냐고. 사실 평생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살았던 그 분

들에게 환율의 문제 등은 단 한번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었다. 이제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루마니아는 보여주고 있었다.

5) 경제적 낙오자들의 문제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경쟁에서의 낙오자들을 만들게 된다. 공산체제 하에서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루마니아는 실업자들을 위한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실업자가 되면 2년간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그들의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주는 것 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그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 생활비로 써버리고 있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책적 실수였다. 정말 하여야 할 일은 돈을 주는 일이 아니라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는 어떤 부의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루마니아의 실책 중 또 하나는 강요된 은퇴자를 양산하였다는 것이다. 즉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아예 일찌감치 노동자들을 은퇴하도록 한 것이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되면서, 개인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국가 정책에만 기대하려는 태도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실은 어떤 위험을 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조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지도자 자리를 지키려고 일을 하지, 정말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 낙오자들이 가지는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매우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사회에 가진다. 그들은 사회 체제의 변화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되고,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동시에 아직 경제적으로 나오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 불안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으나, 아직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더 집착하고, 새로운 일에 나서지 않게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경제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6) 불법적인 새로운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

일반적으로 사회 체제가 바뀌면 그 바뀐 체제에 더 잘 적응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더 잘 적응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여 돈을 벌게 되지 않고 있을 때 갈등은 증폭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과거의 다른 요소들과 합쳐지게 되면 좀더 심각한 양상이 된다. 루마니아에서는 특히 집시의 문제들이 이와 연관되었다. 인구의 10%나 되는 집시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돈을 버는 집단으로 부각되면서 전체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었다.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루마니아에는 집시라는 인종 문제가 있다. 이들 집시들은 국가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등록된 숫자만으로도 전체 국민의 약 10%정도라고 추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커져서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40%까지 이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집시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주로 암시장에서 일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 시절과는 다르게 이들은 이제 암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손쉽게 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벼락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집시들이라서 그것이 이들 루마니아 사람들의 분노를 크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또 다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집시들이 문제이다. 그들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필수 도둑으로 큰돈을 벌어 궁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에 따라 집시 때문에 루마니아인은 외국으로 나갈 때 비자가 필요하다.....집시가 나쁜 일은 다하고 있다.....때로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집시들도 있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집단이 국민의 일부분으로 있어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IV. 루마니아 사례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시사하는 점들

위에서 본 루마니아의 사례는 향후 한반도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과거사 처리 문제에서의 갈등 극복

김일성, 김정일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 의미는 과거 루마니아에서 차우체스쿠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매우 강렬하고 독특하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에서 모든 선과 가치의 근원이었다. 국가의 권위와 존재 이유도 모두 그들 개인을 통하여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북한은 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의 집요한 권력 욕구

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엘리트들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 그들의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을 상징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 인민은 그들의 민족적, 국가적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있어,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기 원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현상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복합적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주체유일 사상은 유치원 때부터의 모든 학교 교육과 일반 사회 사상 교육, 모든 문화 활동, TV와 신문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교육시켜졌다. 동시에 북한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철저히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여 일반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외부 사람들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여과 없이 듣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있어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폭압정치의 상징이며,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니 그들의 악의 화신이라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과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빠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와 함께 사회에서 일어 날 여러 혼란들은 전체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그들이 냉전시대에 민족의 생존과 자존심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지도자라는 인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만들 것이다. 북한에서는 통일 초기에 이러한 토론이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통일 과정을 통하여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시대나 시대의 지도자를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나타났었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과거 체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나을 것이다. 즉 통일이 되면 김일성을 매도하는 분위기만이 북한을 쉽게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남한의 좌파적 그룹들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 통일은 그런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역사 인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통일이 되고 북한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일차적으로 북한 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 청산과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북한 전체가 하나의 사상으로 묶여 있던 단일성을 가진 집단인 동시에 권력과 부와 정보가 소구의 지도집단에게만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던 일종의 극단적인 계급사회였다는 것이 그 처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루마니아는 그 지도집단이 단일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북한 지도 집단 중심의 통일이 아닐 때,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수동성과 두려움의 문제 극복

루마니아에서 보게 되는 사회 체제 변화후의 국민들의 심리 변화는 수동성과 두려움이었다. 절대적인 독재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실 그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한 것이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북한에서도 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현재 북한은 소위 “정치 만능” 사회이다. 정치적 논리와 힘이 그 어떤 논리와 힘보다 더 강한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가

운데 생존해 남아야 했던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매우 “정치적” 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때로는 눈치로, 때로는 결과 속이 다른 것으로, 때로는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가의 문제에 대한 예민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와 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북한의 구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등장을 하였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점에 있어 흥미 있는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태도이다. 사실 탈북자들은 ‘하나원’이라는 기관에 들어와 훈련을 받으면서 과거 북한과 같은 힘과 권위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하나원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순종적이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식의 태도가 강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히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 공동선을 이룬다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이들은 매우 큰 혼란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 문제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북한에서 단순하고 순종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충분한 정보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편적으로 이익만을 쫓으려 할 때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을 다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래 한국인들의 기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초기에 가질 것이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의 사례가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할 때에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그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끓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그들의 조심성을 그들의 수

동성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은 정해져 있는 법칙에 따른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강한 자기주장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가 강하다. 그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체제가 상징한 것은 그들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그들이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로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저항을 완전히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북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런 점에 있어 북한은 루마니아 사람들과는 좀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 사람들의 개인적, 집단적 활동과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루마니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공산 독재체제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늘 직·간접적인 공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북한은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이루어 진 사회이다.

3.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의 갈등과 극복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권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서는 주체사상,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정의, 가치, 의미, 권위의 명확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다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없

게 된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가치가 이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것을 수용하는 속도와 정도는 사람들에 따라 개인차가 심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갈등 속에 조심스러운 관망을 하는 기간이 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집단주의적 정서가 강하므로, 전체적인 대세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먼저 돌출적인 행동을 하려는 태도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과감히 나서는 몇 사람들이 있고,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게 될 지라도 전체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 체제가 그동안 강조하여 온 가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집단주의적인 보편적 가치이다. 예를 들어 겹손, 성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타인을 위한 희생,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계속 강조된 주요 덕목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철저히 집단적 성격을 가진 덕목들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행복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민족과 조국,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덕목 자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둘째는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가치이다. 북한의 특징은 위에서 이야기한 보편적 가치들조차도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에게 초점을 맞추어 재정립하려는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모든 보편적 가치는 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런 예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강조하였기에 비로소 가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충성과 성실, 타인에 대한 사랑 등도 모두 김일성, 김정일을 위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식이다. 여기서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보편성이 깨끗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가치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어 온 북한이기에 통일 이후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있어 몇 가지 혼란과 갈등이 예

상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이 관여되어 있지 않아도, 겸손과 성실과 진실함은 여전히 중요한 인간의 보편적 덕목이고 가치라는 것이 이들에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남한과 외부 세계가 보여주는 모습일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과 전혀 상관없는 남한 사람이나 외국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봉사와 자기 헌신 등의 태도가 북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그런 보편적 가치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제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가치는 사회주의 조국 건설과 그에 대한 장애물을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극복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목표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왜 인간이 보편적 가치에 의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역할이 될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 정교가 전통적인 종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종교는 루마니아의 체제 변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 속에서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난다. 종교가 이들이 새로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의 최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진행될 수 있느냐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제체제의 변화와 사회심리 간의 갈등 극복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변화

만을 의미하는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거대한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동반하는 것이다. 경제 체제는 그 사회의 모든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체제의 변화란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지도 집단의 변화, 문화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 교육의 변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생존해 남는 방법의 변화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변화에서의 갈등이 나타날 때, 그것은 총체적으로 사회 전체의 심리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루마니아는 일단 혁명을 통하여 경제 체제는 바꾸었으나, 그것이 매우 인위적이고 불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나머지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경제 체제 변화가 유도될 때는 그것을 경제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루마니아의 예는 경제적인 변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체제라는 설명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며, 거기에는 그 외의 다른 많은 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작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의 많은 현상들은 사회 심리 문제가 경제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혁에 있어 자본주의적 시각과 전제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즉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경제 개혁이고 자본주의화라고 설명만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쉽게 동의하고 따라 와 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에 있어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루마니

아의 예는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모든 운영 방식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인식하지만,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라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다. 북한에게는 중국이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도 다를 수 있으며, 더 철저한 공산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므로 중국과 같은 변화가 빠른 시기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V. 마치는 말

舊공산 루마니아와 북한은 많은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공산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된 독재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그에 순응하며 살았다. 그 지도자들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 받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원하였다. 구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가지기 원하였다. 이렇게 비슷한 두 국가였으나 차우체스쿠의 루마니아는 결국 붕괴되었고, 김일성의 북한은 그 아들이 권력을 이양 받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다른 舊공산권 국가와도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겪고 있다. 그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적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어쩌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갈등을 좀더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역사로 본 동유럽의 정치와 경제』 서울: 두남, 1999.
- 김홍명. 『사회주의의 제 문제』 서울: 나남, 1993.
- 박창희. 『동구권 국가들의 그 후 국제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5.
- 박형중. “급진적 체제전환의 성공과 실패.” 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7.
- 안정수. 『동구 사회주의의 실험의 전말, 소련-동구-중국-북한: 그 변화의 실상』 서울: 문우사, 1991.
- 안택원·김영래·이기영·정갑영 공저. 『러시아와 동유럽』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양운철·정한구 공저.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북한에 주는 교훈』 서울: 세종연구소, 1999.
- 윤덕희. “동유럽 민주화 이행의 문제점.” 명지대학교 논문집. 1997.
- 이규영 옮김·클라우스 폰 바이에 지음.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숙자·안병영 외 공저.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II),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서울: 박영사, 1986.
- 이숙자. “동유럽 민주화 개혁의 과정과 방향.” 성신여대 사회과학 논문집. 1993.
- 이은구. “전환기 국가정치, 경제개혁과 좌파정당의 재집권.” 『한국행정학보』 29권 4호. 1995.
- 이원영 편역·크리스 하먼·마이클 헤인즈 지음.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서울: 갈무리, 1995.
- 이정희. 『동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 최동희.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서울: 나남, 1991.
- 허 만 외. 『동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서울: 집문당, 1993.
- _____. 『체코 공화국 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Ash & Timothy G. "Central Europe: The Present Past."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XLII. 1995.
- Bartlett, D.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Economic Policy*. 13.
- Blanchard, Oliver J. *The Economics of Post-Communist Tran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Bolton, P. & Roland, G. "Privatization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
- Boreri, Tito & Mark Keesee. "Labour Markets and the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OECD Economic Studies*. Vol. 18. Spring. 1992.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New York: Collier Books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90.
- Brada, Josef. "Technological Progress and Factor Utilization in Eastern European Economic Growth." *Economica*. Vol. 56. 1989.
- Brogoan & Patrick. *Eastern Europe 1939-1989*. London: Bloomsbury Publishers, 1990.
- Brown, A. (eds.). "When is Transition Over?" Kalamazoo: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quoted contributions by Aslund, Gelb, Kornai & Svejar. 1999.
- _____. Central Europe Online. 2000.
- Crawford, Beverly und Liphart, Arend. "Explaining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0. 1995.

- Eurobarometer. "Central and Eastern Eurobarometer."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91, 1991/92, and 1992/93.
- Darwish, Karen, & Bruce Parrot, (eds). *Democratization and Authoritarianism in post-Communist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Freedman, R. "What Direction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Oliver Jean Blanchard et al.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Vol. 2. 1994.
- Kornai, J. "Ten Years after The Road to a Free Economy." The Author's Self-Evaluation. The World Bank,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89.
- Lewis, P. G. "Theories of Democratization and Patterns of Regime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3. 1997.
- Lovatt, D. & Lovatt, C. "Romanian News Round up, Central European News." www.ce-review.org. January 2000.
- Makinen, I. H. "Eastern European Transition and Suicide Morta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51. 2000.
- Meyers, A. "Feminism,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In: Wolchik, S. & Meyers, A. (eds). *Woman State and Party in Eastern Europ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 Marie Lavigne. "Ten Years of Transition: A Review Articl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3. 2000.
- _____.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and St. Martin's Press, 1999.
- Marie Lavin. "Russia and Eastern Europe: Is Transition Over?"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 Vol. 23. 1996.
- Peterson, S. "The Politics of Identif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 1996.
- Potemskin, A. "The Myth of Reformers." *Nezavisimaya Gazeta* January 15. 1998.
- Ramet, P. & Sabrina. *Social Currents in Eastern Europe.* Duke University Press, 1995.
- Reynolds, P. & Yong P. *Eastern Promise: Privatization Strategy for Post-Communist Countries.* London: Adam Smith Institute, 1992.
- Rose, R. "Ex-Communist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67. 1996.
- Sam Vaknin. "Attitudes Toward Western Countries." www.cereview.org. January 2000.
- Shleifer, A. & Vishny, R. W. *The Grabbing Hand: Government Pathologies and their C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Silviu Brucan. *Social Change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8.
- _____.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7.
- Shlapentokh, V. "Old, New and Post Liberal Attitudes toward the West: From Love to Hat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 1998.
- _____. *Social Revolution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and Press: The Pulse of

- Europe." *A Survey of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Attitudes*. 1991.
- Wasserman, D. & Varnik, A. "Increase in Suicide among Men in the Baltic Countries." *Lance* 343. 1994.
-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ww.worldbank.org>. 2000.
- Welsh, H. A. "Political Transition Process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Vol. 26. 1994.
- White, S. et al.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1990.

동유럽 인터넷 자료

KBS, <http://www.kbsworld.net/>

동유럽은 자본주의화하고 있는가?

<http://prome.snu.ac.kr/~skkim/data/article/files/choi3.html>

동유럽 붕괴 10년 현장을 가다 (주간내일신문, 308/99/11/24)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308/30845.htm>

발레리 번스, 탈냉전기 체제전환, 통합과 해체: 동유럽의 경험, 2001

http://asiacenter.or.kr/seminar/1219/1219_03_01.asp

루마니아

외대 루마니아어파, <http://my.dreamwiz.com/romania9/>

김효수 개인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TheTropics/Equator/5197/>

김성기 교수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romania/>

루마니아 정보, <http://romania.site.ro/>

Abstract

Romanian Socio-Psychologic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and their Suggestions to Korean Unification

Woo taek Jeon, M.D. · Sung Kil Min, M.D.*

We visited Romania from November 24, 2002 to December 1, 2002 and held semi-structured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with the following Romanian key informants; four sociologists, two economists, two psychologists, one journalist, one doctor, and four diplomats, etc. There were a total 16 interviewees. The interview questions targeted the socio-psychological conflicts the Romanian people experienced during their countries social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First, they experienced conflicts associated with the abolishment of the past practice of the communist regime, such as punishment of the leaders of old dictatorship regime. Second, they experienced conflicts related to their deeply-rooted passivity and fear remnants of the old communist regime which severely restricted their autonomy. This learned passivity is one of the largest problems in the building of new capitalistic

*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untry. Third, they experienced conflicts related with collapse of the old value system and rise of the new value system. The very strong and oppressive old value system under communism was considered as the absolute good in the past. However under the new capitalistic society, it becomes useless. With this old system fading into history, nobody knew what new value system would replace the old one for the new society and who would build it. And in these conflicts, the issue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severance of education to young generation were also involved. Fourth, they experienced conflicts related with their adaptation to the new economic system. For example, people have excessive expectation to their income and increased propensity to consume which do not match with their real income. To rid the old economic system and make way for a new economic culture was difficult. To most people understanding capitalism was difficult in itself. Some people who failed to adapt to the new economic system and understand the new illegal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were difficult to treat.

Romania had not also communist system but also very strong and long-lasting dictatorship which is very similar with North Korea. So, this Romania study shows the task which new unified Korea will face and should solve. Unification of Korea has more complex features. In Romania, leader group of the old regime became the new leader group in capitalist regime after revolution, so they could avoid sharp opposition in the transition of power. However, the process and power transition of Korea unification is expected to b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Romania. The resolution to this problem will become the main issue of unification. Religion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the new value system of the unified Korea and resolving divided positions. The case of Romania's transition to capitalism shows the complex nature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its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the prospect of Korean unification.